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이학래, 편집인: 최진웅
 편집: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김진모·배정환·서학수·양태진·이종용·
 최준원·Hong Sok(Brian) Kim)



제21대 이학래 학장 취임

■ 산림과학부 이학래 교수가 7월 27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제21대 학장에 취임하였다. 임기는 2년이다. 이학래 학장은 본교 임산공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환경자원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부터 본교 산림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농생대 교무부학장, 서울대 학생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펄프 종이공학회 회장, 산업표준심의회 제지부회

위원장, Journal of Bioresource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0대 학장 이임식 및 제21대 학장 취임식이 7월 27일 201동 강당에서 열렸다. 박은우 전임 학장의 이임사와 이학래 신임 학장의 취임사에 이어 서울대 박명진 교육부총장과 농생대 동창회 정운환 회장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역대 농생대 학장과 명예교수, 교수, 직원, 학생 및 학부모 모임 CALSP 회장단이 함께 참석했다.

취임사

농업생명과학 교육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제21대 학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지금까지의 발전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에 새삼 어깨가 무겁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우리 사회로부터 농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길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농생대의 존재 이유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농생대 구성원 모두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각오를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생대는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 초일류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CALS VISION 2015”를 선포하였습니다. 지난 해 24분의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추진 기획단은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실행 과제를 실천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은 농생대의 비전 달성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법인화라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체제를 농생대 발전의 전기로 삼고 슬기롭게 적응해나가도록 힘을 쏟을 때입니다.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찰과 엄격한 자기반성을 통해 한 발 앞서 흐름이 이끌어 가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되어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친애하는 동료 교수님, 직원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리고 동문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생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1대 학장 이학래

<주요내용>

2면 _ 이창화 이사 장학금 기부
 2면 _ 나형주 장학금 수여식

3면 _ 세계 농산업 현장 체험
 3면 _ 청소년 농생명과학 프로그램

4~5면 _ 농생대 인사이드
 6면 _ 학장단 소개

이창화 신영(주) 이사, 장학기금 4억 기부



왼쪽부터 오연천 서울대 총장, 이창화 신영(주) 이사

■ 이창화 신영(주) 이사가 7월 7일 호암교수회관에서 발전기금 협약식을 갖고, 농생대 재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4억 원을 기부했다. 이 장학기금은 조모의 이름을 따, “박순근 어머니 양지 장학기금”으로 조성되며, 농생대 재학생중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문적 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창화 이사는 서울대 문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자유언론수호 투쟁과 관련해 해직되어 2001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한겨레신문의 창간을 맡아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 함께 한 이창화 이사의 동생인 이창희 신영(주) 대표이사는 농생대 농생물학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한 농생대 동문이다.

나형주 장학금 수여식



■ 나형주 장학금의 첫 수여식이 6월 9일 개최되었다. 나형주 장학금은 2009년 야외교육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나형주** 학생의 유지를 기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4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고 이날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이 날 수여식 행사에는 **故 나형주** 학생의 아버지와 누나, 작은아버지 등 유가족과 동기생 1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나형주 학생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열아홉 어린 나이에 생을 마쳤지만 형주가 이루지 못한 농업생명에 대한 열정과 꿈을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이뤄주길 바란다” 고 소감을 밝혔다. 농생대는 앞으로도 매 학기 장학생을 선발해 나형주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서진호 교수, 듀폰과학기술상 수상



■ 농생명공학부 서진호 교수가 6월 13일 종합과학 회사 듀폰에서 시상하는 제9회 “듀폰과학기술상”을 수상했다. “듀폰과학기술상”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심사를 통해 Food(세계의 늘어나는 인구에게 식량제공), Fuel(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축), Protection(인간 생명 및 환경 보호) 등 세 분야에서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과학자를 선정해 수여되고 있다.

서진호 교수는 생명공학기술과 화학공학기술을 융합한 미생물 공장화 기술을 확립하고 바이오 기반 화학소재 및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그린화학공정 기술개발 및 바이오매스로부터 친환경적인 바이오 에탄올과 화학소재의 생산 공정을 개발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축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정철영 교수, 학생처장 임명



■ 농산업교육과 정철영 교수가 서울대 학생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7월 28일까지 2년간의 임기 동안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 한다. 정철영 교수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년간 농생대 학생부학장을 역임했다.

류영렬 교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부임



■ 류영렬 교수가 2011년 8월 1일자로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조경학전공)에 부임했다. 신임 류영렬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 및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UC Berkele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Harvard University 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전공분야는 환경생태계획 및 관리이다.

세계 농산업 현장 체험

CALS Global Challenger, AAACU-UPM Study Tour

■ 2008년부터 시행된 CALS Global Challenger 프로그램이 이번 여름 방학을 맞아 7기 학생들을 배출했다. 제7기 CALS Global Challenger는 5개팀, 총12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농산업 현장을 탐방했다. “Dream Seed”팀(농경제학 서중원 외 1명)은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비영리단체와 우수사례 마을을 탐방하여 선진 체계와 지식을 습득했고, “E.V.A.S”팀(작물생명과학 홍아름 외 1명)은 BT계열의 세계 최고 기술수준 보유국인 미국의 동부지역을 방문해 plant biotechnology를 통한 plant(edible) vaccine의 국내 연구 활성방안을 모색했다. “Global C.A.P”팀(농경제학 김소담 외 2명)은 필리핀의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 현장을 방문하여 농촌개발의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를 이해하고, 필리핀과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고, “자연 그대로가 좋아”팀(응용생명화학 정범구 외 2명)은 독일을 찾아 선진 친환경 농업에 대해 알아보고, 품질 관리 및 인증기관을 탐방했다. 또한 “Greasy Boys”팀(식품생명공학 전민식 외 2명)은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팜유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팜유를 이용하여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탐방했다. CALS Global Challenger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7기를 거치며 25개팀, 총 67명의 학생의 세계 농산업 현장 체험을 지원했다.

■ 7월 11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AAACU(Asi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Colleges and Universities, 아시아농과대학연합회)의

주최로 말레이시아 Putra 대학에서 2011 AAACU-UPM Study Tour가 개최되었다. 농생대에서는 유혜진(산림환경학), 홍은정(작물생명과학) 학생이 참가하여 강의, 발표와 토론, 산업시찰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농업생명과학 전공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두 명의 학생들에게 농생대에서 항공비와 일부 현지 경비를 지원했다.



AAACU-UPM Study Tour

여름방학 청소년 농생명과학 프로그램

생명공학캠프, 생명·환경과학 체험학습



■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7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생명공학캠프”가 농생대에서 개최되었다. 생명공학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유발하고 생명공학 및 관련 분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신문의 주최, 농생대의 주관으로 매년 여름방학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각 기수별 2박 3일의 일정으로 2기에 걸쳐 90여 명의 학생이 캠프에 참가하여 생명공학과 관련된 농생대 교수진의 특강을 듣고



세포분열관찰, 미생물배양 및 관찰 등의 생명과학 프로그램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토양, 대기 관찰 등의 환경과학 프로그램 등 총 22개 강좌가 개설되어 55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이번 여름방학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통해 참가자가 되는 등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광합성과 효효, 주방용품을 이용해 식물 DNA 추출하기 등의 실험실습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 농생명과학동기지원(NICEM, 원장 산림과학부 최인규 교수) 생명·환경과학 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2011학년도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생명·환경과학체험학습”이 7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되었다. 각 프로그램 당 2일의 과정으로 DNA추출과



2011 바이오모듈레이션 심포지엄

2011 바이오모듈레이션 국제 심포지엄

WCU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과 농생명공학부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Biotechnology for Future Era”를 주제로 2011년 바이오모듈레이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 Genomic aspects of biomodelling, 2) Stem cell and cell transformation, 3) Biomaterials for physiological regulation, 4) Animal biotechnology for future application 등의 소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국내외 연구자가 초청되어 최신 연구동향과 성과를 발표했다. WCU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은 다양한 융복합연구분야의 소개와 국내외 우수 석학의 초청강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매년 바이오모듈레이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농장 필모식

농장 필모식

농장(농장장 식물생산과학부 손정익 교수)은 모내기를 마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필모식(畢耗式) 행사를 5월 30일 개최했다. 여러 교수진과 직원, 학생이 함께 참가해 모심기를 체험하고 풍성한 가을걷이를 기원했다.



창의연구단/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심포지엄

세균의사소통 창의연구단/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심포지엄

세균의사소통 창의연구단(단장 농생명공학부 황인규 교수)과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소장 농생명공학부 최상호 교수)는 6월 20일 2011 International Symposium을 개최했다. “Bacterial Genomics: Principle and Application”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Univ. of Washington의 Greenberg 교수, Harwood 교수 등 관련 분야의 해외석학이 연사로 참석하여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식물병원 제22회 조경수 관리교육

식물병원(원장 농생명공학부 제연호 교수)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제22회 조경수 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조경수의 관리의 최신이론과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조경수 관리 전문 교육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교육생들은 조경수의 생리, 주요 병해충관리,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 이식기술, 토양 관리 등의 이론교육과 교내 캠퍼스 조경수 건강관리에 관한 현장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에는 59명의 교육생이 참가하였으며, 2000년 제 1회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835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식물병원 제22회 조경수 관리교육

BK21 농생명공학사업단 농생명공학 워크숍

BK21 농생명공학사업단(단장 농생명공학부 하종규 교수)은 7월 26일 SCOPUS 학술지 선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김형순 교수를 초청하여 농생명공학 워크숍을 개최했다. 영어 논문 초록 작성법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는 3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였다.

동물생명공학전공 동문, 여학생 생활공간 지원



8월 22일 Open House

■ 동물생명공학전공(축산학과) 출신 동문들이 뜻을 모아 후배 재학생들이 무료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윤희진(1963년 입학), 지원철(1973년 입학), 한규혁(1979년 입학), 장성룡(1979년 입학), 김유용(1983년 입학) 동문이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기부하여 거처 마련을 위한 전세금을 조성했다. 전공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동물생명공학전공 학부 여학생들이 8월 6일부터 이곳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 학생들은 8월 22일 집을 마련해준 선배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해 8월에도 동문 7명(윤희진, 이범호, 김동식, 박화춘, 임동달, 이상철, 김유용)이 남학생들의 생활공간을 마련한 바 있다.

교육연수원 연수 프로그램

교육연수원(원장 농업교육과 김진모 교수)은 전국 전문계고 교장, 교감, 장학사를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1일 까지 “제14기 직업교육 CEO과정”을 운영하였다. 호암교수회관 및 중국 광저우/심천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강의와 토론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업교육의 발전을 고민하고 서로 화합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총 7개 과정에 전국의 마이스터/특성화고 및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 293명이 참석한 “2011년 중등교원 현직교육 연수”를 주관, 운영하였다.



교육연수원 연수 프로그램

원예과학전공 견학 및 MT

식물생산과학부 원예과학전공은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견학 및 MT를 다녀왔다. 전공 교수진과 학생 70여 명이 참가하여 강원도 평창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공사 현장, 대관령 원예농협, 농촌진흥청 고령지 농업연구센터 등의 방문해 현장 학습했다.



원예과학전공 견학 및 MT

제6회 지역분석여름학교

BK21 범국가 및 지역분석 전문가 인력사업팀(사업팀장 농경제사회학부 김의준 교수)은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과 공동으로 8월 23일 제6회 지역분석 여름학교를 개최했다. “GAMS의 기본구조 및 실습 (단순 CGE모형의 활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는 관련 학생 및 연구원 30여 명이 참가했다.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국제 심포지엄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국제 심포지엄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소장 농생명공학부 문태화 교수)는 8월 25일 “Agricultural Biomaterials for Next Generation”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업생물공학 국제 심포지엄의 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미국, 일본 등의 국내외 석학이 참가하여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청도농업대 공동 심포지엄

서울대-청도농업대 공동 심포지엄

식물생산과학부는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채소육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청도농업대학과의 공동 심포지엄 “SNU-QAU Joint Symposium on Plant Science”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청도농대의 Song Xiyun 부총장 등 10명의 교수가 서울대를 방문하여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진행되었다. 25일 서울대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갖고 최근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으며, 26일과 27일에는 농촌진흥청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의 연구 기관과 농업유통센터, aT센터 등을 방문했다. 2007년에 학술교류협정, 2010년에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 양 대학은 상호교류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매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학부생 연구역량 개발 프로그램



6월 24일 학부연구생 간담회

■ 농생대는 학부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Research Fellowship Program(학부연구생) 및 Creative Research Program(학생창의연구)을 시행했다. Research Fellowship Program은 지도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대학원생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7월과 8월 여름방학을 이용해 4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Creative Research Program은 학부생 스스로가 연구주체가 되어 지도교수와 주제를 선정,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성과물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6개팀 14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15주에 걸쳐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학생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연구비가 지원되었으며 Creative Research Program을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물을 도출한 팀에게는 포상이 수여된다.



제21대 이학래 학장과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농생대를 위해 힘써 일할 학장단이 선임되었다. 지면을 통해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본다.

사진 왼쪽부터 최진용 기획부학장, 정진화 학생부학장, 이학래 학장, 오기봉 교무부학장, 백남천 연구부학장

교무부학장 오기봉 교수

농생명공학부 응용생명화학전공

지난 백년간의 역사와 빛나는 업적을 발판으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농생대의 교무부학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서울대 법인화”를 앞두고 우리 대학은 새로운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요구받고 있으며 “학문적 수월성 제고를 통한 농생대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농생대 구성원 모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와 각오를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답하기 위해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시는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이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생대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부학장 백남천 교수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21세기는 농업생명과학이 미래 중점 산업분야 중 매우 큰 축을 차지하는 학문분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미천한 제가 우리 농생대의 연구부학장을 맡게 되어 송구스러우나 농생대의 일원으로서 대학의 연구 발전을 위해 봉사하라는 중책을 주신 것이라 믿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대학의 연구비 수주 실적과 연구논문의 양적 성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농생대들과도 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다학제적 연구 및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동시에 연구의 수월성, 연구자의 윤리 및 우리 학문의 정체성을 높이는데 더더욱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미천한 제게 농생대 연구발전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견해 및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임기동안 교수님과 대학원생들 연구 수행에 필요한 모든 환경 인프라 개선 및 수주하신 연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부학장 정진화 교수

농경제사회학부 농경제학전공

우리 농생대는 그간의 지속적인 발전에 더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농생명산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고 이러한 성장을 주도해나갈 핵심 인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학생부학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전문인으로서의 역량 개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공과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보다 알차고 즐겁게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능력이거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생대 구성원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부학장 최진용 교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전공

부족한 사람이 무엇을 맡는 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결정이지만 농생대 식구들이 좋은 분들이라서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생대의 가장 큰 현안인 평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가 이제 종착점이 얼마 남지 않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먼저 와 닿았습니다. 법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이 농생대 앞에 있고 수월성 확보를 통한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도 세워져 있습니다. 관악캠퍼스로 이전한지 이제 만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학은 내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2012년에는 평창 그린바이오단지가 준공됩니다. 하드웨어 못지않게 그 안에 좋은 연구 콘텐츠를 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술립을 비롯한 농생대의 많은 시설들이 법인화 이후에도 연구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존속시키는 것도 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규모나 시설이 부족한 부속농장의 확장과 첨단화도 또 하나의 큰 과제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은 기획조정팀과 대외협력·홍보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농생대를 위한 어떤 일도 말씀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일보 2011년 5월 27일〉

잘 나가던 생수회사 CEO 반납하고 월급 120만원 숲 해설가로 제2인생



광릉수목원 안내 김용환 씨(농교육 72) "좋아하는 자연 속에서 제가 가진 능력을 살려 숲이 주는 이로운움을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 씨의 이력은 화려하다. 생수업체인 (주)스파클 대표직을 2009년까지 8년간 역임했다. 이전에는 CJ 제일제당 임원으로 재직했다. 스파클에서 영업부문 대표를 맡으며 90억 원이던 연간 매출액을 150억 원으로 키웠다.

원하면 얼마든 오래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었다. 더 늦기 전에 좋아하는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소망을 실천하고 싶었다. 2009년 7월, 젊다면 젊은 57세에 미련 없이 회사를 나와

자연과 호흡하고 살며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와 함께 찾은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환갑이 넘은 나이에 젊은이 못지않은 정열로 관람객을 안내하는 "숲 해설가"를 만나 감명을 받았다. 김씨는 그 길로 숲 해설가로의 변신을 마음먹었다. 사회에 나와서 활용하지 못 했던 대학 전공을 살리기에 제격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해 사단법인 숲연구소에서 마련한 숲 해설가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숲 해설가 자격을 갖췄다. 곧바로 국립수목원 숲해설가 공모에 응시해 당당히 합격, 올 1월 초부터 숲 해설가로 활동 중이다. "이 일은 돈벌이 수단이 아닌 자원 봉사 의미에서 한다"는 그는 "숲 해설가로 거듭난 후 몸과 정신 건강이 모두 좋아지는 걸 체감하며 지낸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연합뉴스 2011년 6월 30일〉

줄기·생식세포 원형유지 전사체 발견

- 서울대 한재용 교수 연구팀 성과... 미국립과학원회보 실려



닭의 줄기세포나 생식세포가 다른 세포로 분화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체(마이크로RNA)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 전사체는 유전자 발현을 앞서 조절하는 인자를 통칭하며, 전사체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로RNA는 생물의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작은 RNA(리보핵산)다. 서울대학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한재용 교수팀이 닭 연구를 통해 줄기세포의 일종인 배반엽 세포와 생식세포의 분화 여부를 결정하는 마이크로RNA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 초기 배아나 생식세포의 발달·분화 조절 원리를 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닭에서 발견된 "miR-181a"라는 마이크로RNA는 체세포 분화 유전자 "HOXA1"과 감수분열을 일으키는 유전자 "NR6A1"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원형 생식세포가 체세포나 분화상태의 생식세포(정자, 난자)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다. 또 다른 마이크로RNA "miR-302a"와 "miR-456"은 체세포 유전자인 "SOX11"의 발현을 방해, 줄기세포가 특정 세포로 분화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 연구 성과를 활용하면 닭의 줄기세포나 생식세포의 발달·분화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 인슐린 등 생체물질을 얻으려고 닭의 형질을 전환하는 작업이 쉬워지고, 멸종위기 동물 복원 기술도 진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인체에서도 이들 전사체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난치병 치료 등까지 활용될 전망이다. 이 논문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6월 13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신호경 기자

〈세계일보 2011년 7월 15일〉

[기고] 청소년 직업체험 확대... 미래를 찾게 하자

- 농산업교육과 정철영 교수

지난 몇 년 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과 자부심을 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김연아 선수가 떠오를 것이다. 세계 최정상급으로 우뚝 서기까지 파뎀 어린 노력과 무수한 인내의 시간이 있었겠지만, 김연아 선수가 7세 때 집 주변의 아이스링크에서 피겨스케이팅을 만날 수 없었다면, 어린 딸이 피겨스케이팅을 시도하도록 이끌었던 어머니의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피겨스케이팅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을까. 진로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 시기에 진로는 무한한 반면 막연하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은 구체적이고 다양해야 한다. 순위은 모의체험으로부터 현장실습, 인턴십과 같은 체험을 통해 실제로 자신의 적성을 탐색함으로써 막연한 꿈이 씨앗으로 자라고 나아가 성공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는 원천이 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직업체험의 여건이 열악하고, 부모의 손길이 제한적인 우리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는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직업체험을 강조하고 "직업세계 체험기간" 까지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직업을 체험할 만한 마땅한 기관이나 시설이 별로 없고,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과 진로 정보, 진로 설계 및 다양한

직업체험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공공 직업체험 시설의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06년에 발족된 잡월드설립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3월에 "한국 잡월드"의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이용 대상의 확대나 수익모델 개발 등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강국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받는 핀란드의 경우처럼,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위해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유관기관 그리고 기업체가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진로교육의 국가적 틀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수준에서 진로교육에 관한 총괄적인 권한을 갖고 전략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를 상황에 맞게 조정해 실행에 옮기는 일선 현장에서의 질 관리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민영화 확대에 나선 영국이 진로교육과 관련한 예산과 권한을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다시 회수했다는 것은 진로교육의 공공적 역할의 중요성과 국가 및 공공기관 수준에서의 권한과 책무성을 시사한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자신의 소질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도와주고 지원해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고 행복한 새로운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동문동정]

▶이철우 동문(농경제 61, 롯데쇼핑 대표이사)이 5월 26일 서울대 경영대학원 12대 동창회장으로 취임했다.

▶장석효 동문(농공 67)이 6월 1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윤한철 동문(잠사 74)이 7월 21일 농협중앙회 IT본부본부장(CIO)으로 임용됐다.

▶신현경 동문(농화학 65)이 8월 10일 전라남도 식품산업연구센터 소장으로 임용됐다.

[교수동정]

▶정중훈 교수(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는 5월 27일 “한국조직공학 · 재생의학회 2011 우수학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7월 8일 한국농업기계학회 총회에서 바이오시스템공학회지 편집위원장에 선임되었다.



▶김유용 교수(농생명공학부)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연변농학원을 방문하여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김성균 교수(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는 6월 2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세계조경가협회(IFLA) 이사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2018년 IFLA 세계총회의 한국유치 제안연설을 했다. 이날 이사회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한국이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손정익 교수(식물생산과학부)는 “파프리카의 생육 및 환경 요인과 증산량과의 관계 분석” 논문으로 7월 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제2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안동만 교수(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는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세계조경가협회(IFL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총회에 IFLA Sir Geoffrey Jellicoe Award 후보자 지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상은 세계적 업적을 쌓은 조경가에게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윤여창 교수(산림과학부)는 연합전공 글로벌환경경영학의 전공 주임으로서 7월 27일과 28일 “환경경영학 및 지속가능성학 연합전공 개발을 위한 국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주요 대학의 교육자들이 참석하여 서울대의 지속가능성학 및 환경경영학 교육의 발전방안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동창회 소식]



▶농생대 동창회 상임부회장단,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현장 방문
농생대 동창회(회장 정운환) 상임부회장단은 7월 9일 평창에 건립 중인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정운환 회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상임부회장이 참석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단지 근교에 위치한 한국자생식물원을 견학했다. 모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동문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모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농화학/응용생명화학전공 동문회 정기총회

농화학/응용생명화학전공 동문회(회장 이정호)는 5월 28일 동문과 동문 가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 동문회 회장으로 72학번 서주원 명지대 교수, 수석부회장으로 73학번 윤석후 동문, 74학번 이희설 동문을 선출하였고 응용생명화학전공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총회 후 버들길 마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동문 간의 친목을 다졌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6~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7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F.873-2056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3-2056

- 원예과학전공 T.880-4578 F.873-206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F.873-3560

- 산림환경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명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3-2039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T.880-4901

F.873-2039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팀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1)293-0313 F.(031)293-0314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3~4 F.884-0182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동기기관 T.880-4845 F.880-4847

국가농림기상센터 T.880-4986 F.871-1361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T.880-4920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식품 안전성 및 독성 연구센터 T.880-4921

F.873-5260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 F.873-2039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T.880-4942

F.873-5426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0-4528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898 F.886-48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4-0324

F.(031)294-852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학실 T.880-4619

식품공학 T.880-4824

★ 소식을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 [대외협력 · 홍보팀]
(T. 880-4537, calsweb@snu.ac.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